

민주화·통일 향한 끝없는 외침... '늦봄의 길'

(사)늦봄문화기념사업회,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 뮤지컬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시대 탄압 맞선 흔적 조명

고 문익환 목사의 끝나지 않은 민주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뮤지컬이 마련됐다.

(사)늦봄문화기념사업회의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 기념 뮤지컬 공연 '늦봄의 길'이 오는 23일 오후 7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민주주의 상징 문화 콘텐츠 제작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문 목사의 생애 중 1970년대와 1980년대 시기를 그린 뮤지컬이다.

꽃다운 젊은 청춘들의 사랑과 꿈, 우정을 담은 1막과 문 목사가 민주주의 선언문 작성으로 투옥되는 장면부터 문 목사의 아내인 박용길 장로(이냐영 배우)를 필두로 투옥자 아내들인 공덕귀(장유정 배우), 이희호(오하은 배우), 페이문(김재현 배우)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장면까지 담고 있는 2막으로 구성됐다.

실제 구속자 가족들은 옥바라지를



문익환 목사 역 양시영 배우(왼쪽)와 문익환 배우 박용길 역 이냐영 배우.

하며 기독교에서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은 채 부채와 우산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시대의 탄압에 맞서는 다양한 모습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도 국가 현실에 통탄하는 인물인 한지영(양희연 배우), 민주주의 선언을 낭독하는 이우정 장로(정채린 배우), 한겨레·박성현·전한별·박예음·고은미 배우가 나서 격동의 시기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다.

공연 연출·각색을 맡은 황지람 연출



가는 기존 역사적 사실을 다른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켜 극의 서사성을 더했다. 여기에 단순한 극 전개를 위한 대본이 아닌 새로운 장면과 인물로 통해 당대 행해졌던 임시검문, 분신자살사건 등 시대의 초상들을 보다 몰입감 있게 다루고자 했다.

앞서 '늦봄의 길'은 2021년 남독극서트 형식으로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성남과 화성에서 갈라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고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를 맞아

기획한 뮤지컬 작품을 통해 그의 삶과 사랑, 암울했던 70-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의지를 만나보길 바란다"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 관람은 13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S석 1만원, A석 5천원이다.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시민생활문화팀(062-670-7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대구시립국악단 공연 모습

'달구벌의 樂·歌·舞'

대구시립국악단 교류공연...내일 남도국악원 진악당

달구벌의 기악과 노래, 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됐다. 국립남도국악원은 16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대구시립국악단 교류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대구시립국악단은 1984년 창단돼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 대표 국악단이다.

우리 전통음악 보존과 전승에 힘쓰는 한편 국악과 한국무용 대중화 및 현대화, 생활화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달구벌의 樂·歌·舞'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날 공연은 가야금 2중주 '집향무'로 막을 연다. 이어 양금독주 '검은사막', 민속무용 '태평무', 태평소협주곡 '호적풍류'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서도민요 '씨름·금다래공', 난봉가, 관현악 '화랑'까지 풍성한 국악관현악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221>육십사괘해설 : 63. 수화기제(水火既濟) 下

기제(既濟)괘 육십사괘의 효사는 '수유의어, 종일계(繡有衣袿, 終日戒)이다. 즉, '수 놓은 화려하던 옷이 낡은 누더기로 변하니 종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제지혁(既濟之革 四動)	
수화기제	택화혁

사효는 음위에 음효로 구오의 군주를 보좌하는 대신이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환난을 방지해야 하는 유순정위(柔順正位)에 있는 현신(賢臣)이다.

상전에서는 '운 종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 '종일계 유소의야(終日戒 有所疑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배에 구멍이 뚫려서 운종일 근심 걱정하면서 구멍을 막느라 정신이 없다. 수놓은 화려한 옷을 배의 구멍을 막느라 쓰니 누더기로 변해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환이예방(思患而豫防)하느라 정신없다.

'수(繡)는 곱고 화려한 명주 실크로 건(乾)에 해당해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하고, '어(袿)는 헤어진 낡은 옷으로 곤(坤)으로 바뀐 건(乾)이 교체하는 이화(離火)의 미려(美麗) 속에 감수(坎水)가 숨어 있다.

그래서 화려한 명주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에 낡고 헤어진 소매 끝이 살짝 보이는 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제의 안태(安泰)가 정점(頂點)을 지나서 화려한 아름다움 속에 고괘(蠱敝)의 조짐이 있으니 종일 경계해서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육사를 얻으면, 일이 정점을 지나 변화가 생기는 징후가 나타나고 변화에 대한 엄한 경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수(繡)는 배에 물이 새는 것이 고 의어(衣袿)는 낡고 헤어진 걸레나 거저로 물이 새는 구멍을 막는다는 효사의 뜻이니, 복멸(覆滅)의 위험이 다가오는 때이다.

표면은 화사하나 내부는 추악(醜惡)하다는 의미가 있고 마음이 잘못 꼬여 있거나 도둑과 같은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기미가 있다.

운기, 운세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 오랫동안 쌓여온 눈에 보이지 않은 손실이나 폐해가 드디어 숨길 수 없게 돼 반드시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 거래 등은 점차적으로 쇠해 보잘 것 없게 되고 이로 인한 재산, 신용을 잃어 괴로움이 나타나니 안전하고 확실한 방침으로 전환해 조심해야 하며 서로 상대를 속이려는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서는 것을 절제하고 멈춰야 한다. 사업의 확장, 이전 등은 불가하고 축소해야 한다. 물가는 낮은 가격이 유지된다.

혼인은 첫눈에 반해 예쁘게 보이고 그 약점과 허실(虛失)은 감춰져 있으니 보류해야 한다. 성사돼도 끝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잉태는 어렵고 임부(妊婦)가 섭생(攝生)이 어려워 출혈의 염려가 있다. 기다리는 것은 이뤄질 듯하면서도 이뤄지지 않고 가솔인은 행적을 고의로 감추고 있으며 분실물은 찾을 수 없다.

"육사(繡有衣袿), 구오(東鄰殺牛, 不如西鄰禴祭), 상육(濡其首厲)"

<수유의어>

<동린살우 불어서린악제>

<유기수려>

병은 표면적으로는 회복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오나 오히려 악화돼 가고, 좋아질 것 같이 보이면서도 병근(病根)이 점점 깊어 가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기제괘 구오의 효사는 '동린살우, 불어서린악제 실수기복(東鄰殺牛, 不如西鄰之禴祭 實受其福)이다. 즉, '동쪽 이웃이 소를 잡아 성대하게 제사 지내는 것은 서쪽 이웃이 간소한 제사를 지내 실제로 신령의 복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기제지명(既濟之明夷 五動)	
수화기제	지화명(明夷)

오효는 양강 중정의 군주로서 동린살우의 성제(盛祭)의 주인공이고, 이효는 유순중정의 덕성을 갖춘 소박한 인물로서 서린악제의 겸소한 박제(薄祭)의 주인공이다.

상전에서는 '동쪽 이웃이 소를 잡아 성대하게 제사 드리는 것은 서쪽 이웃의 간소한 제사보다 못하다. 신령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차 큰 길함이 오는 것'이라고 해 '동린살우 불어서린지사야 실수기복 길대래야(東鄰殺牛 不如西鄰之時也 實受其福 吉大來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큰일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축소된다. 동쪽에서 하려고 했던 일이나 사업을 정리해서 서쪽으로 옮기고, 간략하다시 추진해 간다면 오히려 더 실익이 있다.

'동린'은 외괘 감(坎)에 해당되고 감(坎)은 곤(坤)의 소(牛)와 교체해서 피(水)를 보는 상이니 살우(殺牛)라고 했으며 '서린'은 내괘 이(離)에 해당해 여름 제사처럼 간략하지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즉, 겸한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소하지만 내면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복(福)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효에서는 기제의 교만과 혼란이 농후해지고 제사도 표면만 성대하게 과대 포장하는 것을 경계하는 효사를 뒤 기제괘가 흠어지고 있는 것을 확실해 말하고 있다. 또한 동린은 구오의 양강(陽剛)을, 서린은 육이의 유순(柔順)을 가르키고 있지만, 동쪽에서 주색에 빠진 주왕(紂王)의 사치폭정과 서쪽에서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서백문왕(西伯文王)의 인심을 얻고(得人心)는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구오를 얻으면,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허영 등을 버리고 절약과 축소, 진솔과 간축으로 내실을 기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는 호조(好調)였으나 이제 궁박해져 가므로 긴축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투자만 많고 수익은 올리지 못하는 때이므로 한층 규모를 축소해 지출을 막도록 해야 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피로하니 자신을 경계하 하면서 아랫사람의 재력(才力) 있는 자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거래, 사업 등은 정리를 단행해야 재생(再生)의 길이 있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붕괴에 이르게 된다. 이전

도 때를 놓쳐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바라는 바는 성실로 대하면 통할 수 있지만 거의 통달하기 어렵다.

혼인은 추진하지 않은 것이 좋고, 출산은 난산(難産)으로 모체(母體)를 구하기 위해 태아를 난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기다리는 사람, 가솔인과 분실물은 기대하기 힘들다. 날씨는 비가 오고 쉽게 개이지 않으며 물가는 하락의 기미가 현저하다.

기제괘 상육의 효사는 '유기수려(濡其首厲)이다. 즉, '여우가 강을 건너다가 머리를 물에 적시니 위험하다'는 뜻이다.

기제지가인(既濟之家人 上動)	
수화기제	풍화가인

여우의 머리에 해당한다. 기제괘의 패상 자체가 물을 건너 가는 여우의 모습이다. 초구에서는 꼬리가 젖을 것을 걱정해 개울을 건너지 않았는데(濡其尾) 상육에서는 머리카락이 적시 버렸으니(濡其首) 그 위태로움이 대단히 크다. 상육은 개울을 건너서는 안되는 음유한 소인인데 모험을 감행하여 머리까지 물에 빠져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상전에서는 '여우가 강을 건너다가 머리를 물에 적시 위험하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해 '유기수려 하 기구야(濡其首厲 何其久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머리가 아플 일이 생기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힘들다. 완벽함이 없어지고 미완성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근심이 많다.

초효는 꼬리에 해당하지만(濡其尾) 상효는 머리에 해당된다. 머리가 물에 빠져 젖으니(濡其首) 위험한 것은 당연하다. 기제를 초길종난(初吉終難)이라 하는데 상효는 종난(終難)의 시기로 괴란(壞亂)과 복멸(覆滅)의 때를 만나 기제가 극해서 이제 미제(未濟)가 나타나고 있어 할 수 있다. 꼬리를 적시면 중단해야 하는데 육십에 눈이 어두워 더 깊이 들어가 머리까지 적시면 더 나아가지 못함을 물론, 되돌아오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다. 무사안일(無事安逸)에 빠진 백제 의자왕, 당나라 현종이 처한 상황과 같다.

점사에서 기제괘 상육을 얻으면, 추진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빨리 단념하지 않으면 대실패의 큰 재앙을 만난다.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쇠퇴했고 모든 것이 이제는 한 여름 밤의 일장춘몽(一場春夢)에 불과하다. 멸(滅)에 이르는 쇠운(衰運)이므로 이익(利慾)을 버리고 속히 물러나 생명이라도 보전하는 방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운기, 운세는 의지할 나 무그늘조차도 없을 정도로 흉하고 수난(水難)의 우려가 있다. 바라는 바도 통달하지 못하니 빨리 단념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 사업도 대실패의 흉조가 농후하고 이미 파산에 이른 상태이니 물러나는 일 이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속히 물러서서 서해(傷害)를 피해야 한다.

거소(居所)에는 수난(水難)을 당할 우려가 있고 오래 거주할 수 없는 상으로, 옮기고 머무는 것을 반복하여 일가(一家)가 위태롭다. 혼인은 대흥으로 당사자 간에는 깊숙이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출산은 역아(逆兒)이거나 유산(流産)의 우려가 있으며 태아의 생명이 위태롭다. 기다리는 사람은 장애가 있어 오지 못하고 가솔인은 상당한 곤경에 빠져 있으며 분실물은 흔잡한 곳이나 물가에서 잃었고 찾기 힘들다. 병은 생명이 위협하다.

'실점'으로 '중병 중인 환자의 병침'에서 '기제지가인(既濟之家人 上動)을 얻고 점고하길 '상효가 동(動)함은 기제의 끝으로 종말(終末)이 왔다는 의미이니 앞으로 60일 후, 연말(年末) 감수(坎水)의 수왕절(水旺節)이 끝난 때에 명(命)을 다하는데, 부인의 적극적인 간호에 힘입어 손풍(巽風)의 목왕절(木旺節)까지 살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모인의 운기 여하'를 입서해 기제괘 상육을 얻고 점고하기를 '기제는 이미 일이 이뤄져 있는 패이니 완비하고 있는 것을 파괴해서는 안되고 지킨다는 정신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효를 얻었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사업을 일으켰으나,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 버린 것이다. 마치 수영이 미숙한 자가 큰 냇물을 건너려 하다가 중간쯤에서 힘이 다 빠져 익사(溺死)하는 경우와 같다. 이를 유기수려(濡其首厲)라고 한 것이다. 속히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단호하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혼인의 길흉 여하'에서 입서해 상효를 얻으면 혼인을 해서도 안되고 혼인은 이뤄지지도 않는다. 모두 포기함이 현명하다.

기제괘는 초길종난(初吉終難)으로 '완성은 곧 붕괴(崩壞)라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상괘 상효에서 그러함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기제괘는 변화에서 만나 는 것이 길하고, 일상적인 작은 일에는 길을 얻으나 대사(大事)에서는 별 재미가 없다. 그러므로 일단 성취한 것을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새로운 계획이나 변혁을 절대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뤄진 것에 대한 오만과 나태로 인해 이뤄진 일이 흠어지고 마니,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

<동인·도시계획학박사>

[동인선생 강좌 개설 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 명리사주학, 역경해설, 매주 토·일 각 4시간, 1년 과정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 양성, 2024년 11월 초 개강

